금호타이어 '노노갈등' 임단협 암초

1노조 3000명 민주노총
2노조 200명은 무소속
감정싸움에 폭력사태
1노조 계파간 힘겨루기도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4년 임금단체교섭 협상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노조와 2노조로 나누어진 복수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 노조 계파 간 힘겨루기 등 '노노갈등'이 임단협 타결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들어 노조 대의원의 자살과 도박사건, 노조사무실 습격 등 노조가 갖가지 사건사고에 연루되자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바라는 지역 경제계는 자중을 바라는 분위기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6일 대의원대회 및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다수 노조인 1노조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18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잡고 사측과의 교섭 및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잔업 거부 등의 투쟁 지침도 유보하고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노조는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폭행, 폭력, 기물파손 등의 행위도 엄중 자제해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1노조 소속인 A씨가 2노조 소속 B씨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목을 매 숨지자 노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방침은 노조원 손에 깨졌다. 18일 새벽 1노조의 한 대의원이 2노조의 사무실을 급습, 집기류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1노조의 2노조에 대한 '보복성' 폭력이라는 설이 노조원 사이에 난무하다.

금호타이어 3200여명의 노조원은 민주노총 산하의 1노조 3000여명과 무소속 2노조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임단협 교섭창구는 1노조로 단일화돼 있다. 노조끼리의 감정싸움이 폭력행사로 드러난 셈이다. 광산경찰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일엔 금호타이어 노조의 현 집행부 간부들이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수백만원 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북부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임단협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여론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사이, 노조 간부들이 도박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노조의 계파 간 '힘겨루기'도 입 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 노조 집행부인 '현장투쟁노동자회'(현장투쟁회)와 이전 집행부인 '민주노동자회'(민노회) 간의 견제가 심해 노조원 간 이견도 많다는 주장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노조원은 "회사 측이 현 집행부에 역대 최고의 인상안을 제시하다 보니, 민노회 측에서 '이렇게 많이 인상해주면 다음 노조 집행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빨리 임단협을 끝내라'라고 오히려 노조가 사측에 타결압박을 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는 대부분 민노회 출신이 차지했으며 현장투쟁회는 이번이 2번째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여론 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임단협을 타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잇따라 노조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모두가 금호타이어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만큼, 노조가 임단협 타결이라는 목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의 단체교섭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5일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다음날 숨을 거뒀다. A씨는 자살 직전 억울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살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난 15일 이석범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장이 여수의 사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장경영 방침에 따라 지역 사업소를 연이어 방문하고 있다. 〈한전 제공〉

청렴 조직문화 구축 고강도 대책 추진

한전 광주전남본부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완벽한 전력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경영 활동에 들어갔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15일 여수와 광양을 잇따라 방문, 주요설비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석범 광주전남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소 직원들에게 빨강 장미꽃을 직접 나눠주고,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시간을 마련하는 등 소통 및 화합의 장을 제공했다. 또 여수산단과 광양항 등 중요 시설과 전력 설비를 점검한 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대화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신 수 원 광주지방국세청장

"중기 사업하기 편한 따뜻한 세정"

납세자 권익 최우선 존중
현장소통 강화 경제활성화
4대 탈세분야 정상화 주력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복지재정 확충 등으로 세정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시기지만 세정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광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 청이 관할하는 광주, 전남·북 지역경제는 GRDP(지역총생산)의 9.3%, 세수는 4.6%로 열악하다"며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없애고 납세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 경제적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영세납세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세정,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납세자에게 가장 필요한 세정지원이 무엇인지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납세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이와함께 탈세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4대 탈세 분야에 대해서는 역량을 결집해 과세영역 밖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신 청장은 "근로장려금은 물론 올해 확대시행되는 자영업자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켜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민들이 세정을 통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자영업자 장려금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개편해 업무를 수행할 요량이다.

신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자유롭게 소통하고 따뜻한 동료애를 느끼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조직 전체의 창의성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청장은 솔선수범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실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다. 또 서로 돕고, 감싸주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발전방안에 대해 신 청장은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상생세정이 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들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려움을 헤아리는 헌신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 납세자들로부터 일등 광주청, 일 잘하는 광주청, 따뜻한 광주청' 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 출신인 신 청장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측 사실상 승소

기아차에도 영향 미칠 듯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쳐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통상임금 관련 노조 대표소송을 제기한 기아자동차도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소속에게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특근과 잔업이 많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3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9	12	19	20	39	41	1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17,257,094	12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798,175	47
3	5개 숫자일치	1,360,825	1,789
4	4개 숫자일치	50,000	87,613
5	3개 숫자일치	5,000	1,430,227